

17/02/05(주) 주일예배 / 제목 : 믿음이란 무엇인가(히 11:1~6) p.365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표와 믿음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이고 믿음은 그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그 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서론입니다. 3-4장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난분이라고 말합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제사장 직분의 존귀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오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실명으로 10명이 거론됩니다. 아벨로부터 기생 라합까지 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문제는 달랐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문제와 씨름하며 살았으나 그들이 살았던 공통된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본론** / 믿음은 무엇인가?

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위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보는 것만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다릅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마음으로 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유진 피터슨이 말한 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열 사람이 말합니다. “가봐야 안돼요. 거인들이 거기 살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면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백성들이 열 사람의 말을 더 믿다가 38년이나 방황하고 결국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열 정탐꾼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정탐꾼의 말이 사실이고 열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 힘이 장사인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대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였습니다. 열 사람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을 말한 사람과 진실을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처녀가 아기 못 낳는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누구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맨발로 홍해를 건넜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은 과학으로 말하고 진실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 야이로, 과부의 아들 청년,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메스컴은 사실을 말하고 성경은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히11:6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옵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로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몇 년전 모 기독교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44.2%, “살아 계신 것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다”가 38.9%,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4.5%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마도 살아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다니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하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과 “증거”입니다. 과학은 증명하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실은 증명하고 진실은 증거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는 성별이나 이목구비나 성향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라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은 내 혈액, 내 성격, 내 유전인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를 누가, 왜, 어떻게 지었는지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지었다”고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은 과학에 기초하고 증거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과학으로 모두 증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세계는 동일한 인과율을 가져야 합니다. 개미가 개미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사람을 겨우 알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존재방식과 속성에 있어서 다릅니다. 인간은 순간을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삽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을 증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히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 자연을 통해, 둘째 역사를 통해, 셋째 성경을 통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압니다. 학자들은 지구가 축으로 23도 기울어져서 스스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지구가 22도만 기울었거나 24도를 기울었다면 지구는 지금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변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구를 그렇게 정확하게 지었습니까? 달은 지구로부터 2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만일 달이 5만 마일만 지구로 가깝게 다가와도 지구는 조수의 인력으로 인해 온통 물바다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표피가 지금보다 10피트만 높아져도 지구의 모든 생물은 산소부족으로 하여 모두 진멸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정교하게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아십니까? 기러기는 시간당 82킬로의 속도로 무려 1,600킬로나 날아간다고 합니다. 누가 기러기를 창조했습니까? 신비하기만 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곰들에게 마취제를 놓고 비행기로 실어 500킬로 먼 곳에 떨어 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곰들이 오랜 후에 500킬로를 돌고 돌아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곰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떻게 그 먼 길을 찾아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도로 표시판도 없고, 냄새도 거의 없는 외딴 섬을 거쳐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곰들, 신비하지 않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별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늘에 떠있는 별이 1,500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하계는 지구에서 약 2백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빛이 200만 년 달려야 도달할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우주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시8: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변화무쌍한 역

사는 누가 움직여 가는지? 지난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마 러시아 공산주의의 멸망일 것입니다. 70년 간 계속된 공산주의 철권통치가 어느날 ‘고르바초프’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1989년,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 몽골이 일시에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나마도 전쟁없이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독립과 자유를 맞았습니다. 그때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소련의 군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왜 소련은 그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고르바초프 한 사람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뜻 보면 역사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제도와 군대와 힘으로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 하십니다.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3.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믿어야 하는 데 그것은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히11:6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먼저 믿음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가 유명 한 기독교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빌리 그래함’ 목사입니다. 그는 빌리 그래함의 외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이 방황하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가 왜 방황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몇 가지를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믿는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날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았고 성실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볼 때 교회 빠진 날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출석할 뿐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이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했으니 당연히 자기는 믿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 데 그는 일생 착하

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별로 죄지는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남도 구제하고 자주 시간 내서 기도하고,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시험이 닥쳐오자 한 순간에 무너져 긴 방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둘 다 능동형입니다. 둘 다 행위자의 의도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나는 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은혜로부터 나오며 나의 신앙적 행위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나는 잠잠히 있겠다”는 식의 태도는 우리로 게으름에 빠지게 해 믿음을 믿음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은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action)과 우리의 반응(reaction)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시63:8)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라야 붙들어 줍니다. (시편 27: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아야 만납니다. (암5: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아야 삽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능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롬5:1~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나아가다”는 말은 왕을 만나려고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궁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감

니다. 그러나 허락받았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복을 입고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이 은혜라면 실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내게 다가오는 행동이 은혜라면 내 쪽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찾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에게 상주십니다. 아벨에서부터 기생 리합까지 10명의 믿음의 모델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기 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면 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상 받으시라.

**요약정리** /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3.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